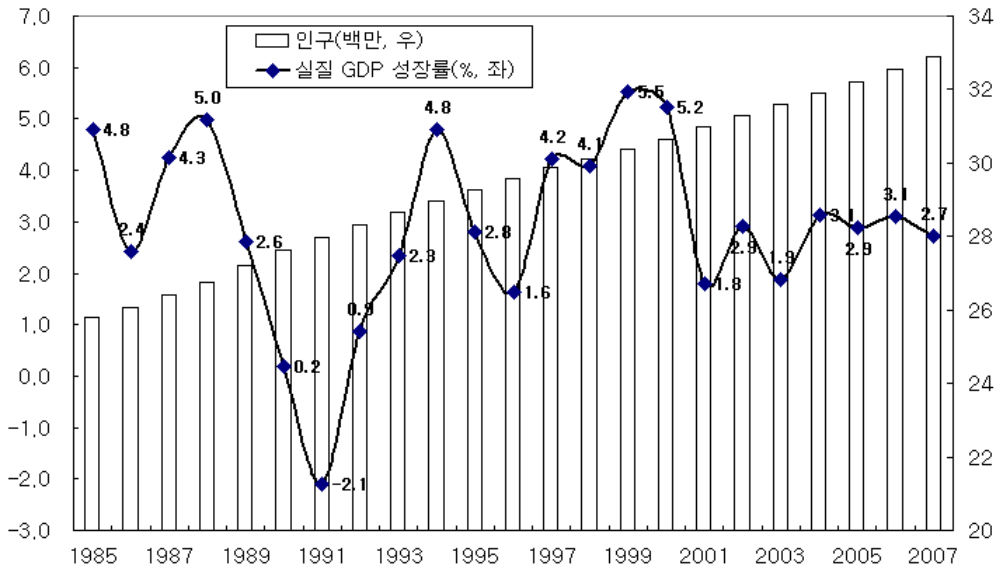


## II. 캐나다

- FY 2009: 2009.4~2010.3
- 출처: The Budget 2009(2009.01.27) (<http://www.fin.gc.ca/fin-eng.html>)
- 환율: 1캐나다달러 = 1,028.11원 (2008년 평균)
- 경제규모(IMF기준): '07년 경상GDP 1조 4,361억달러(우리나라 1.5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비율(명목) : '07년 기준 70.3%(우리나라 90.4%)
- 총인구([www.statcan.gc.ca](http://www.statcan.gc.ca)): 33,441천명('08년 4분기 기준)
- 지난 10년간의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전망

-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인해 캐나다 경제 또한 위축되어 '09년 실질 GDP성장률은 0.3%('08년 11월 전망치)에서 -0.8%로 하향 전망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09년 실업률은 7.5%로 전년도보다 1.4%p 상승 예상

◇ 재정전망

-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10여년간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08년 말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2~13년까지 재정수지 적자전망
  - 재정수지는 2009~10년 전년도보다 326억 캐나다달러가 증가하여 337억 캐나다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후 매년 적자가 감소하면서 2013~14년에 7억 캐나다달러를 기록하여 흑자로 전환될 전망
- 총부채는 2009~10년 4,924억 캐나다달러 전망
  - 적자기조를 보낸 후에도 정부 채무부담은 선진 7개국(G7)중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예산기조

- 캐나다의 경기부양정책(Economic Action Plan)을 담은 이번 예산안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기조로 하여 작성됨
  - ① 캐나다 금융시스템 강화 및 개선
  - ② 캐나다인들에게 혜택 및 지출 부양
  - ③ 주택시장 부양 정책
  - ④ 기반시설 구축
  - ⑤ 기업 및 커뮤니티 지원

◇ 세입 및 지출 전망

- 2009~10년 총세입은 2,249억 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4.8% 감소하나 경기회복과 함께 2010~11년부터 증가할 전망
- 2009~10년 총프로그램지출은 경기부양정책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여 2,291억 캐나다달러 전망

◇ 경제위기 대응정책

-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큰폭 인하(2007.12~2009.01)
  - 기준금리를 '07년 12월 4.25%에서 '09년 1월 1.00%로 인하
- 캐나다 중앙은행 유동성자금 긴급 투입(08.09.30)
  - 미국구제금융법안 부결로 인해 위기에 처한 캐나다 금융시장을 위해 단기채권을 발행하여, 유동성 자금 40억 캐나다달러를 긴급 투입하였음
- 캐나다 연방정부의 수출지원
  - 수출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캐나다수출보험공사(EDC)에 20억 캐나다달러를 승인하여 캐나다 기업의 수출을 지원(2008.10)
  - 캐나다 산업부는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BDC)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2008.11.12)
- 캐나다 연방정부는 400억 캐나다달러(GDP대비 2.5%)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2년간 총 516억 캐나다달러(GDP대비 3.2%) 규모의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고 있음(Budget 2009, 2009.01)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상황과 전망

- 실질GDP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인해 캐나다 경제 또한 위축되어 '09년 실질 GDP성장률은 0.3%('08년 11월 전망치)에서 -0.8%로 하향 전망
  - 실질GDP 성장률은 '09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10년 2.4%, 2011~14년 3.0%로 증가할 전망
    - 이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제금융, 저이자율정책, 막대한 재정지출을 포함한 경기부양정책이 예상대로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제하의 예측임
  
- '09년 명목GDP 증가율 또한 -1.2%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 경기회복 예측과 더불어 명목GDP 증가율은 '10년 4.2%, 2011~14년 5.2%로 상승할 전망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09년 실업률은 7.5%로 전년도보다 1.4%p 상승 예상
  - 실업률은 '10년 7.7%, 2011~14년 6.4%로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소 낮아질 전망

<표 II-1 > 2008-14년 경제전망

	2008	2009	2010	Average 2011-14
	(per cent,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eal GDP growth</b>				
February 2008 budget	1.7	2.4	2.9	n.a.
November 2008 <i>Economic and Fiscal Statement</i>	0.6	0.3	2.6	2.8
January 2009 private sector forecast	0.7	-0.8	2.4	3.0
<b>GDP inflation</b>				
February 2008 budget	1.8	1.9	1.8	n.a.
November 2008 <i>Economic and Fiscal Statement</i>	3.8	0.5	1.8	2.1
January 2009 private sector forecast	4.1	-0.4	1.7	2.2
<b>Nominal GDP growth</b>				
February 2008 budget	3.5	4.3	4.7	n.a.
November 2008 <i>Economic and Fiscal Statement</i>	4.4	0.8	4.4	5.0
January 2009 private sector forecast	4.8	-1.2	4.2	5.2
<b>Nominal GDP level (billions of dollars)</b>				
February 2008 budget <sup>1</sup>	1,590	1,659	1,738	n.a.
November 2008 <i>Economic and Fiscal Statement</i>	1,603	1,615	1,687	1,914
January 2009 private sector forecast	1,609	1,590	1,657	1,893
<b>3-month treasury bill rate</b>				
February 2008 budget	3.2	3.8	4.5	n.a.
November 2008 <i>Economic and Fiscal Statement</i>	2.4	1.9	2.7	4.2
January 2009 private sector forecast	2.3	0.8	1.7	4.0
<b>10-year government bond rate</b>				
February 2008 budget	3.6	4.2	4.8	n.a.
November 2008 <i>Economic and Fiscal Statement</i>	3.7	3.7	4.2	5.1
January 2009 private sector forecast	3.6	2.8	3.4	5.0
<b>Consumer Price Index (CPI) inflation</b>				
February 2008 budget	1.5	1.9	2.0	n.a.
November 2008 <i>Economic and Fiscal Statement</i>	2.6	1.7	1.9	2.0
January 2009 private sector forecast	2.4	0.7	1.9	2.0
<b>Oil price level (US dollars per barrel)</b>				
February 2008 budget	82.1	79.8	82.3	n.a.
November 2008 <i>Economic and Fiscal Statement</i>	102.5	72.0	79.0	89.7
January 2009 private sector forecast	99.9	50.2	63.8	82.9
<b>Exchange rate (US cents/C\$)</b>				
February 2008 budget	98.0	95.5	95.5	n.a.
November 2008 <i>Economic and Fiscal Statement</i>	94.9	85.6	88.7	96.0
January 2009 private sector forecast	94.1	81.2	85.5	94.4
<b>Unemployment rate</b>				
February 2008 budget	6.3	6.4	6.2	n.a.
November 2008 <i>Economic and Fiscal Statement</i>	6.1	6.9	6.7	6.2
January 2009 private sector forecast	6.1	7.5	7.7	6.4
<b>U.S. real GDP growth</b>				
February 2008 budget	1.5	2.4	3.0	n.a.
November 2008 <i>Economic and Fiscal Statement</i>	1.4	-0.4	2.1	2.9
January 2009 private sector forecast	1.2	-1.8	2.1	3.1

자료: Budget 2009(2009.01.27)

## 나. 재정상황과 전망

### □ 2012-13년까지 재정수지 적자전망

-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10여년간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08년 말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08년 11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재정수지가 향후 2013~14년까지 흑자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새로 발표된 Budget 2009에서는 금융위기를 반영하여 2012~13년까지 모두 적자일 것으로 전망함
- 2009~10년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326억 캐나다달러 증가하여 337억 캐나다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이후 매년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면서 2013~14년에 7억 캐나다달러를 기록하여 흑자로 전환될 전망
  - 2010~11년 298억 캐나다달러, 2011~12년 130억 캐나다달러, 2012~13년 73억 캐나다달러 적자 전망

### □ Budget2009에서 종전 보고서('08년 11월)보다 경제불황으로 총세입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고,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총프로그램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음

- 2009~10년 총세입은 이전 전망보다 236억 캐나다달러 줄어 2,249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GDP대비 총세입은 2009~10년 14.4%, 2010~11년 14.7%, 2013~14년 15.2% 전망
- 2009~10년 총프로그램지출은 이전 전망보다 126억 캐나다달러 증가하여 2,291억 캐나다달러 전망
  - GDP대비 총프로그램지출은 2009~10년 14.7%, 2010~11년 14.5%, 2013~14년 13.1% 전망

<표 II-2> 재정상황 및 전망

(단위: 10억 캐나다달러, %)

	Actual		Projection										
	2007 ~08	2008 ~09	2009 ~10	2010 ~11	2011 ~12	2012 ~13	2013 ~14	2008 ~09	2009 ~10	2010 ~11	2011 ~12	2012 ~13	2013 ~14
	Economic and Fiscal Statement (2008.11)							Budget 09(2009.01)					
총세입	242.4	239.0	248.5	258.9	270.9	283.9	297.3	236.4	224.9	239.9	259.4	276.4	294.3
프로그램지출(A)	199.5	206.6	216.5	224.6	233.4	243.2	253.0	206.8	229.1	236.5	235.1	244.5	254.1
이자지급(B)	33.3	31.6	31.9	34.3	36.5	36.5	36.2	30.7	29.5	33.3	37.2	39.2	39.6
총지출(A+B)	232.8	238.2	248.4	258.8	269.8	279.7	289.1	237.4	258.6	269.7	272.3	283.7	293.7
채정수지	9.6	0.8	0.1	0.1	1.1	4.2	8.1	-1.1	-33.7	-29.8	-13.0	-7.3	0.7
정부부채	457.6	456.8	456.7	456.6	455.5	452.5	449.5	458.7	492.4	522.2	535.2	542.4	541.8

GDP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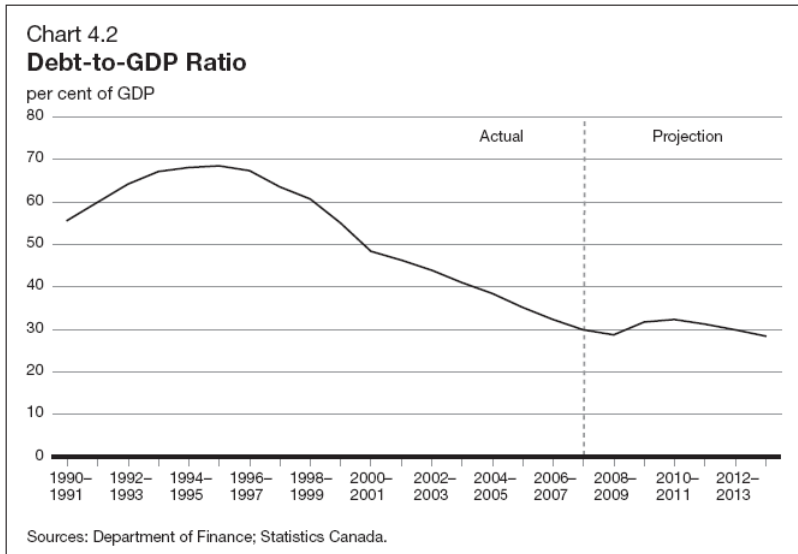
총세입	15.8	14.9	15.4	15.3	15.2	15.2	15.2	14.7	14.4	14.7	15.0	15.0	15.2
프로그램지출	13.0	12.9	13.4	13.3	13.1	13.0	12.9	12.9	14.7	14.5	13.6	13.3	13.1
이자지급	2.0	2.0	2.0	2.0	2.1	2.0	1.8	1.9	1.9	2.0	2.1	2.1	2.0
총지출	15.2	14.9	15.4	15.3	15.2	15.0	14.7	14.8	16.6	16.6	15.7	15.4	15.2
정부부채	29.8	28.5	28.3	27.1	25.6	24.2	22.9	28.6	31.6	32.1	30.9	29.5	28.0

자료: Economic and Fiscal Statement(2008.11.27)  
Budget 2009(2009.01.27)

□ 부채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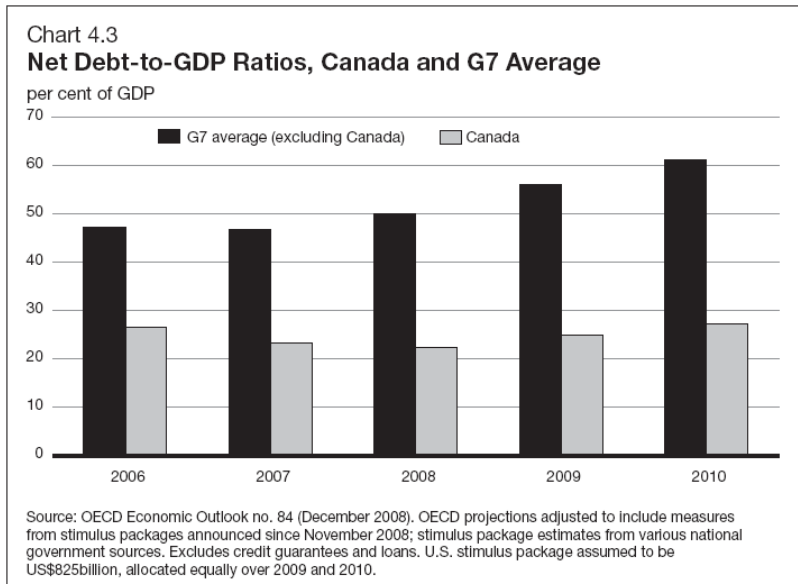
- 총부채는 2009~10년 4,924억 캐나다달러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2~13년 5,424억 캐나다달러를 기록하고 2013~14년 소폭 하락하여 5,418억 캐나다달러 전망
-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비율은 2009~10년 31.6%로 전년 대비 3.0%p 증가하나 점차 하락하여 2013~14년 28.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 적자기조를 보낸 후에도 정부 채무부담은 선진 7개국(G7)중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됨

[그림 II-1] 연방정부 부채 전망



자료: Budget 2009(2009.01.27)

[그림 II-2] G7국가 부채 비교



자료: Budget 2009(2009.01.27)

<참고 1> 캐나다 정부의 부채 감소 노력

- 캐나다는 '70년대 경기불황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80년대 초부터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0년대 중반 GDP대비 약 70%의 국가채무를 기록([그림 II-1]참조)
- 정책·지출관리제도(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 캐나다 정부는 '70년대 후반부터 재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79년 정책·지출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결국 '89년 폐지되었음
- 지출통제법((Spending Control Act, 1992~1996)
  - 정부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지출통제법을 '92년도에 제정하여 1991~92회계연도부터 1995~96회계연도까지의 재정지출에 대한 법적인 한도를 설정함
  - 정부지출의 증가율은 예상물가 상승률인 1.6% 증가율로 한정되었으며, 고용보험 등 특정 부문의 지출은 제외되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90년대 중반 70%였던 국가부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GDP대비 부채비율은 2008~09년 28.6%까지 하락

<표 II-3> 지출한도법의 실적

(단위: 10억 달러)

	1991~92	1992~93	1993~94	1994~95	1995~96
지출한도법					
지출한도	97.2	100.9	104.1	107.4	111.3
수입증가로 인한 한도 증액분		0.1	0.1	0.1	0.1
과도지출 배분 <sup>1)</sup>	-0.6	0.6			
조정된 지출한도	96.6	101.6	104.2	107.5	111.3
지출한도법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지출	95.6	101.6	100.7	102.7	99.0
증감액	-1.0	0.0	-3.5	-4.8	-12.3

주: 1) 프로그램 지출이 지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이후 2년에 걸친 지출 감소로 상쇄해야 함

자료: Budget 1996

## 2. The Budget 2009 기조 및 내용

캐나다의 2009년 기조 : Economic Action Plan

- ① 캐나다 금융시스템 강화 및 개선
- ② 캐나다인들에게 혜택 및 지출 부양
- ③ 주택시장 부양 정책
- ④ 기반시설 구축
- ⑤ 기업 및 커뮤니티 지원

### 가. 캐나다 금융시스템 강화 및 개선

#### □ 금융시스템 접근 개선

- 특별금융프레임워크(Extraordinary Financing Framework)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금융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 정부가 모기지 500억 캐나다달러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은행들은 최고 2,000억 캐나다달러의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됨
  - 2,000억 캐나다달러의 신용대출은 연방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험모기지매입프로그램 1,250억 캐나다달러와 이번 예산안 500억 캐나다달러 추가매입(실체가치 750억 캐나다달러)을 합한 금액임
- 자동차 및 장비 대출 전담을 위한 캐나다 보증크레딧기구(Canadian Secured Credit Facility) 신설로 120억 캐나다달러 투입

#### □ 금융시스템 강화

- 연방재무장관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시장 감독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대출 및 크레딧라인 규정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자율 변화에 대한 투명성 제고도 철저히 할 계획

## 나. 캐나다인들에게 혜택 및 지출 부양

### □ 노동자들에게 혜택 강화

-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향후 2년 동안 실직자 고용보험 최대 수령기간을 기존 45주에서 50주로 확대
-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2년간 5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확대
- Wage Earner Protection Program 지원 확대로 2년간 총 5,0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입하여 고용주의 파산으로부터 고용인의 급여를 보호

### □ 노동자들에게 기술교육 기회 확대

- 고용보험프로그램(Employment Insurance program)을 통해 기술교육지원 확대로 2년간 10억 캐나다달러 투입
- Strategic Training and Transition Fund에 5억 캐나다달러 투자
- 여름직업을 찾는 젊은 캐나다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5,500만 캐나다달러 투입
- 노령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Targeted Initiative for Older Workers를 통해 추가적으로 6,000만 캐나다달러 투입
- 원주민의 기술(Aboriginal Skills)과 훈련투자기금(Training Strategic Investment Fund)에 2년간 총 7,500만 캐나다달러 지원

### □ 고용보험 동결

- '09년과 '10년 2년간 EI보험료로 소득 100 캐나다달러당 1.73 캐나다달러를 내게 됨

□ 고급인력 지원

- 캐나다 장학 프로그램(Graduate Scholarships program)에 3년간 추가적으로 8,750만 캐나다달러 지원
- Budget 2007에 제정된 인턴십 프로그램(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rnship program)을 통해 2년간 350만 캐나다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

□ 세금인하: 향후 5년간 총 200억 캐나다달러 규모 감세 예상

- 기초개인공제(The Basic Personal Amount)와 하위 2단계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을 '08년 기준보다 각각 7.5%씩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일 계획
  - 기초개인공제는 '08년 기준(9,600 캐나다달러)에서 7.5% 인상하여 10,320 캐나다달러임
  - 연방소득세는 소득을 4단계 기준으로 나눠 기준을 넘는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과세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 2단계 과세기준을 높이면 약 83,500 캐나다달러 미만 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됨
  - 이는 세율 자체를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 소득자는 큰 폭의 감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국가육아혜택(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 및 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지원 확대
  - 이러한 지원 확대로 2자녀가정에게 최소 76 캐나다달러에서 최대 436 캐나다달러 추가 혜택이 돌아감

<표 II-4> NCBs와 CCTB 혜택

Family Income	Existing Benefits		Additional Benefits		New Total
	NCBs	CCTB	NCBs	CCTB	
\$20,000	\$3,913	\$2,680	\$0	\$0	\$6,593
\$25,000	\$3,181	\$2,680	\$436	\$0	\$6,296
\$30,000	\$2,031	\$2,680	\$436	\$0	\$5,146
\$35,000	\$881	\$2,680	\$436	\$0	\$3,996
\$40,000	\$0	\$2,633	\$166	\$47	\$2,846
\$45,000	\$0	\$2,433	\$0	\$76	\$2,509
\$50,000	\$0	\$2,233	\$0	\$76	\$2,309

자료: Budget 2009(2009.01.27)

- 저소득층 근로가정에 연중 4차례 수표 또는 자동이체로 지급되는 혜택인 근로소득세금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 수혜액 증액
  - WITB는 빈곤층이 일을 하게 되면 각종 사회보장제도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GST환급처럼 일정소득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되었음

## 다. 주택시장 부양 정책

### □ 주택보유자에게 혜택

- 주택수리세금환급(HRTC: Home Renovation Tax Credit)제도를 통해 2009~10년 25억 캐나다달러 투자
  - '09년 1월 27일부터 '10년 2월 1일까지 1년간 1가구 1회에 한하며 주택수리에 비용을 쓴 캐나다 거주자에게 최대 1,350 캐나다달러까지 감세 혜택
    - : 최소 1,000 캐나다달러를 넘는 최대 1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주택수리를 했거나 자재를 구입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금환급을 제공
  - 적용대상은 페인트칠, 실내수리(부엌, 화장실, 지하실 공사 등), 카펫이나 마룻바닥 시공, 벽체내장재(insulation)교체, 히터나 에어컨 교체, 정원 잔디교체 등임
  - 가구나 공구 구입, 청소비, 일반적인 관리(전등 교체 등)에 사용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에코에너지 개조 지원(eco Energy Retrofit)으로 향후 2년간 3억 캐나다달러 투입하여 20만 가구의 에너지 절약 도모
  - 난방기거나 창틀 등 에너지 효율과 관련 있는 공사를 고려하는 집주인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택수리에 일부 비용을 연방정부가 지원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ecoENERGY)주택은 최고 5,000 캐나다달러를 환급
- 신규 주택 구매자를 위한 Home Buyers Plan (HBP) 제도 개선으로 3,000만 캐나다달러 추가 투입

- HBP는 PRS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살 때 PRSP를 인출해서 다운페이로 쓸 수 있는 제도이며, 올해 PRSP의 인출한도를 기존 20,000 캐나다달러에서 25,000 캐나다달러로 변경하였음
- 출금액은 그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출금액은 출금 2년후부터 15년에 걸쳐 다시 RRSF\*로 재적립해야 함

※ P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캐나다 정부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절세하거나 또는 세금을 차후로 미루는 은퇴저축방안으로 절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첫 주택마련 소비자를 위해 최대 750 캐나다달러의 감세 혜택
- 사회주거시설(Social Housing) 투자
  - 향후 2년 동안 1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사회주거시설 개선
  -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설립을 위해 2년간 4억 캐나다달러 투자
  - 장애자 주거시설 건설을 위해 2년간 7,500만 캐나다달러 투자
  - First Nations Housing에 2년간 4억 캐나다달러 투입
  - 북부지역에 있는 사회주거시설에 2억 캐나다달러 추가로 후원
- 지방자치 정부의 상하수도 같은 주거시설을 위한 인프라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20억 캐나다달러 대출자금 조성

<표 II-5> 주택시장 부양정책

	2008-09	2009-10	2010-11	Total
	(millions of dollars)			
<b>Support for Home Ownership and the Housing Sector</b>				
Home Renovation Tax Credit	500	2,500		3,000
Enhancing the Energy Efficiency of Our Homes		150	150	300
Increasing withdrawal limits under the Home Buyers' Plan		15	15	30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30	175	180	385
	530	2,840	345	3,715
<b>Investments in Housing for Canadians</b>				
Renovation and Retrofit of Social Housing		500	500	1,000
Housing for Low-Income Seniors		200	200	400
Hous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5	50	75
First Nations Housing		200	200	400
Northern Housing		100	100	200
		1,025	1,050	2,075
<b>Total—Action to Stimulate Housing</b>	<b>530</b>	<b>3,865</b>	<b>1,395</b>	<b>5,790</b>
Loans to municipalities		1,000	1,000	2,000
Timing of Home Renovation Tax Credit	-500	500		0
<b>Cash Basis</b>	<b>30</b>	<b>5,365</b>	<b>2,395</b>	<b>7,790</b>
Provincial contributions		725	750	1,475
<b>Total Stimulus Value</b>		<b>6,090</b>	<b>3,145</b>	<b>9,235</b>

자료: Budget 2009(2009.01.27)

## 라. 기반시설 구축

### □ 그린인프라 구축

- 도로, 교량, 하수구 등과 같은 시설 개선과 2년간 40억 캐나다달러 투자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보조하기 위해 그린인프라펀드(Green Infrastructure Fund)에 5년간 10억 캐나다달러 투자
- 하키장, 축구필드, 수영장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개선에 2년간 5억 캐나다달러 투자
- The Provincial-Territorial Base Funding Initiative을 통해 즉시 착공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보조로 2년간 10억 캐나다달러 지원
- 소규모 커뮤니티 인프라 사업에 2년간 5억캐나다달러 지원

□ 캐나다 원주민(First Nations) 기반 투자

- 캐나다 원주민 사회의 교육시설, 상수시설, 커뮤니티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하기 위해 5억 1,500만 캐나다달러 지원

□ 지식기반 구축

- 대학교 시설개선 및 확장을 위해 2년간 20억 캐나다달러 투입
- 첨단기술연구(Leading-edge Research)를 위해 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에 7억 5천만 캐나다달러 지원
- 2009~10년에 온타리오주 워터루(Ontario Waterloo)에 있는 양자전산(Quantum Computing) 시설에 5,000만 캐나다달러 지원
- 북극 연구시설(Arctic research facilities) 유지 및 개선에 2년간 8,700만 캐나다달러 투자
- 실험시설에 2년간 2억 5천만 캐나다달러 지원
- 2009~10년에 캐나다보건정보(Canada Health Infoway) 전자기록화를 위해 5억 캐나다달러 지원
- 광대역 확대에 3년간 2억 2,500만 캐나다달러 지원

□ 연방 기반 구축

- 철도안전(Railway Safety)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7,500만 캐나다달러 지원
- 누나부트준주(Nunavut)에 있는 Pangnirtung Harbour 건설과 항만 수리에 2억 1,700만 캐나다달러 투입
- 연방소유 건물 수리 및 복원에 2년간 3억2,300만 캐나다달러 지원
- 장애인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방소유 건물에 2년간 2,000만 캐나다달러 지원하여 개선

## 마. 기업 및 커뮤니티 지원

### □ 기업투자 도모

- '11년 2월 1일까지 컴퓨터 구입에 대한 자본투자충당금(CCA: Capital Cost Allowance) 면세혜택을 제공

### □ 분야별 지원

- 주요 1차 산업인 임업(1억 7천만 캐나다달러), 농업(5억 캐나다달러), 축산업(5천만 캐나다달러) 지원
- 첨단로봇공학과 우주공학 발전을 위해 Canadian Space Agency에 3년간 1억 1천만 캐나다달러 지원
- 지역사회 문화관련(예: 극장, 도서관, 박물관 등) 기반 구축에 6,000만 캐나다달러 지원

### □ 건강한 환경

- 녹색에너지경제(green energy economy) 지향을 위해 5년간 10억 캐나다달러 지원
- 깨끗한 공기 및 물 등과 같은 환경 척도를 나타내는 보고서에 2009~10년 1,000만 캐나다달러 지원
- CANDU(CANada Deuterium Uranium)는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가압 중수로 발전을 위해 원자력 회사(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AECL)에 3억 5,100만 캐나다달러 지원

### □ 중소기업 지원

- 소규모사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1%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체의 소득기준을 40만 캐나다달러에서 50만 캐나다달러로 인상
- 캐나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2년간 3,000만 캐나다달러 지원
- Canadian Youth Business Foundation 2009~10년에 1,000만 캐나다달러 지원

- 산업연구보조프로그램(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2년간 2억 캐나다달러 지원

□ 지역번영 지원

- 향후 5년간 1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남부 온타리오주(Southern Ontario) 지역의 노동자,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경제발전 에이전트 설립
-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향후 2년간 10억 캐나다달러를 Community Adjustment Fund에 지원
- 동부 온타리오주 발전프로그램(Eastern Ontario Development Program)에 2년간 2,000만 캐나다달러 지원

<표 II-6> Budget 2009 기조에 따른 지출계획

	2008-09	2009-10	2010-11
	(millions of dollars)		
<b>Economic Action Plan</b>			
Improving Access to Financing and Strengthening Canada's Financial System		162	12
Action to Help Canadians and Stimulate Spending	695	5,880	6,945
Action to Stimulate Housing Construction	530	3,865	1,395
Immediate Action to Build Infrastructure		5,727	5,055
Action to Support Businesses and Communities	12	2,372	2,121
<b>Fiscal cost of measures<sup>1</sup></b>	<b>1,237</b>	<b>18,006</b>	<b>15,528</b>
Plus:			
Capital Spending (cash adjustments)		697	685
Loans			
Loans to Auto Sector (announced in December 2008)		2,700	
Loans to Municipalities for Housing-Related Infrastructure		1,000	1,000
Timing of Home Renovation tax credit		500	
<b>Total Federal Stimulus<sup>2</sup></b>		<b>22,742</b>	<b>17,200</b>
<b>Total Stimulus (with leverage)</b>		<b>29,298</b>	<b>22,316</b>
As a share of GDP (%)			
Total Federal Stimulus		1.5	1.1
Total Stimulus (with leverage)		1.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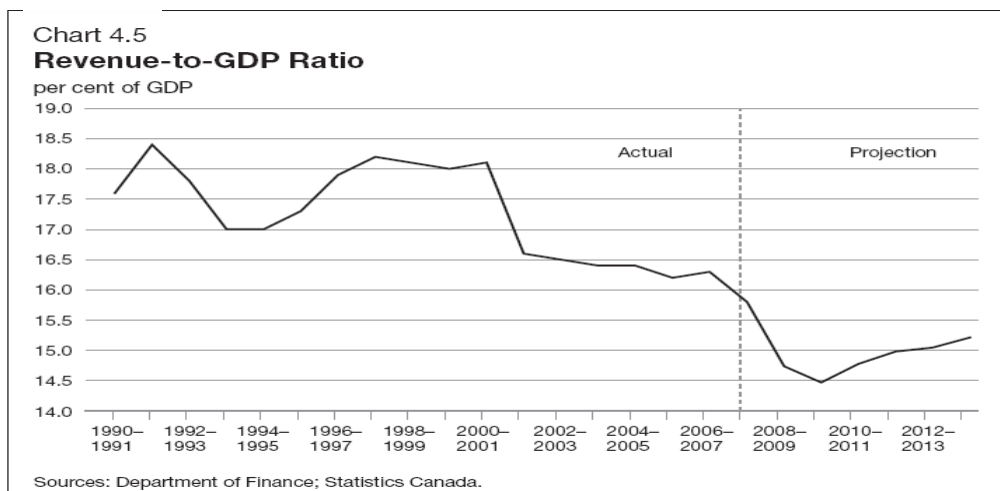
자료: Budget 2009(2009.01.27)

### 3. 세입과 프로그램 지출 전망

#### 가. 세입전망

- 2009~10년 총세입은 감소하나 경기회복과 함께 2010~11년부터 증가할 전망
  - 2009~10년 총세입은 전년 대비 4.8% 감소하여 2,249억 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14.4% 전망
    - 2009~10년 총세입의 주요 세수원은 개인소득세 1,103억 캐나다달러, 법인세 264억 캐나다달러, 재화및용역세 258억 캐나다달러, 고용보험 168억 캐나다달러 등 임
    - 총세입 하락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소득세, 법인세, GST 등의 감소 전망 때문임
  - 2010~11년 이후 경기 회복과 더불어 총세입은 점차 증가하여 2013~14년 2,943억 캐나다달러 전망
    - GDP대비 총세입은 2010~11년 14.7%, 2011~12년 15.0%, 2012~13년 15.0%, 2013~14년 15.2%일 것으로 전망

[그림 II-3] GDP대비 세입 비중



자료: Budget 2009(2009.01.27)

□ 법인세 감소

- 2009~10년 법인세는 264억 캐나다달러로 전년보다 16.9% 감소
- 2009~10년 GDP대비 법인세 비중은 전년보다 0.3%p 하락하여 1.7%로 전망
  - 이는 경제침체로 인한 기업의 순소득 감소와 더불어 연방정부 법인세율(General Federal Corporate Income Tax Rate) 인하 정책 때문임('08년 19.5% → '09년 19.0% → '10년 18.0% → '11년 16.5% → '12년 15%)

□ 재화 및 용역세(GST) 감소

- 2009~10년 GST는 전년보다 2.2% 감소하여 258억 캐나다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나 향후 증가하여 2013~14년 330억 캐나다달러 전망
  - GST세율 인하 결과('08년 1월부터 기존 6%에서 5%로 변경)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영향으로 2009~10년 GST가 감소하나 향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나아질 전망
- 2009~10년 GDP대비 GST는 1.7%로 전망되며 향후 2013~14까지 동일할 전망

□ 고용보험 꾸준한 증가 예상

- 2009~10년 168억 캐나다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14년 204억 캐나다달러 전망
- GDP대비 고용보험은 2009~10년부터 2013~14년까지 1.1% 전망

<표 II-7> 세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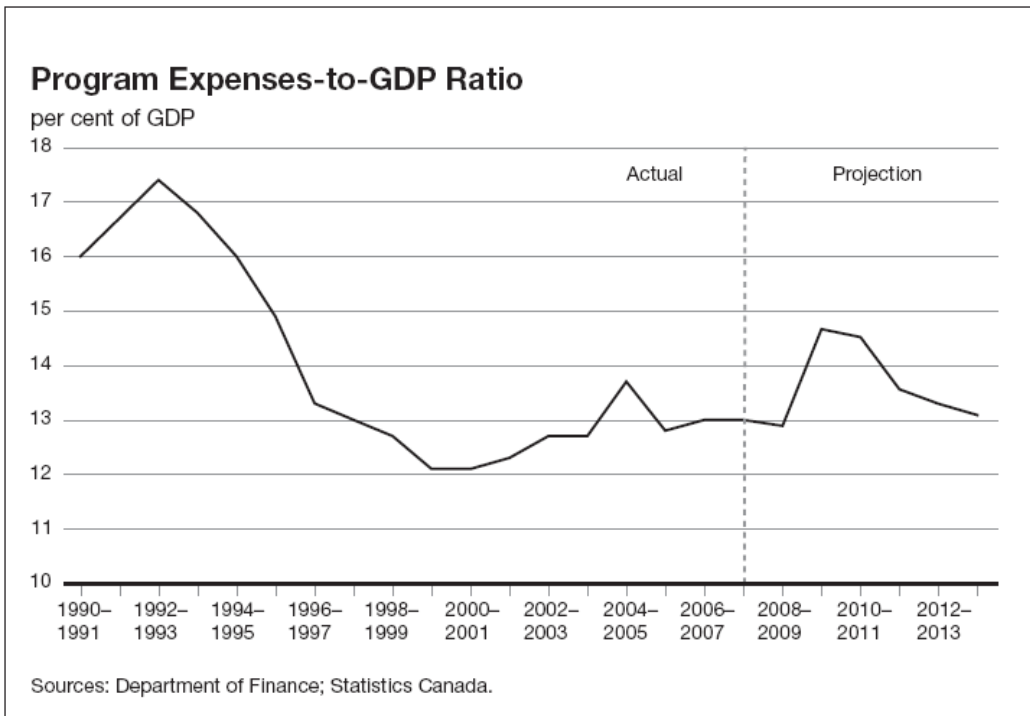
	Actual	Projection					
	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millions of dollars)						
Tax revenues							
Personal income tax	113,063	117,085	110,275	117,865	125,840	136,075	145,950
Corporate income tax	40,628	31,750	26,385	30,770	35,385	36,245	39,475
Other income tax	5,693	5,975	4,875	5,805	6,255	6,560	7,045
Total income tax	159,384	154,810	141,540	154,440	167,480	178,880	192,470
Excise taxes/duties							
Goods and Service Tax	29,920	26,360	25,785	27,315	29,465	31,310	33,005
Customs import duties	3,903	4,185	4,150	4,365	4,505	4,670	4,970
Other excise taxes/duties	10,384	10,340	10,175	9,655	9,710	9,775	9,865
Total excise taxes/duties	44,207	40,880	40,115	41,340	43,680	45,755	47,835
Total tax revenues	203,591	195,690	181,650	195,780	211,160	224,635	240,305
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evenues	16,558	16,620	16,795	17,325	18,350	19,695	20,370
Other revenues	22,271	24,040	26,460	26,820	29,875	32,095	33,630
<b>Total budgetary revenues</b>	<b>242,420</b>	<b>236,350</b>	<b>224,905</b>	<b>239,925</b>	<b>259,385</b>	<b>276,430</b>	<b>294,310</b>
Per cent of GDP							
Personal income tax	7.4	7.3	7.1	7.2	7.3	7.4	7.5
Corporate income tax	2.6	2.0	1.7	1.9	2.0	2.0	2.0
Goods and Services tax	1.9	1.6	1.7	1.7	1.7	1.7	1.7
Other tax revenues	1.3	1.3	1.2	1.2	1.2	1.1	1.1
Total tax revenues	13.3	12.2	11.6	12.0	12.2	12.2	12.4
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evenues	1.1	1.0	1.1	1.1	1.1	1.1	1.1
Other revenues	1.5	1.5	1.7	1.6	1.7	1.7	1.7
<b>Total</b>	<b>15.8</b>	<b>14.7</b>	<b>14.4</b>	<b>14.7</b>	<b>15.0</b>	<b>15.0</b>	<b>15.2</b>

자료: Budget 2009(2009.01.27)

## 나. 세출전망

- 2009~10년 총프로그램 지출 큰 폭으로 증가 전망
  - 2009~10년 총프로그램 지출은 2,291억 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10.8% 증가
    - 2009~10년 프로그램 지출의 주요항목은 노후혜택 352억 캐나다달러, 고용보험 189억 캐나다달러, 아동보조금 123억 캐나다달러, 의료보건 351억 캐나다달러 등임
  - GDP대비 프로그램 지출 비중은 2009~10년 14.7%로 전년보다 1.8%p 증가하나 점차 감소하여 2013~14년 13.1% 전망

[그림 II-4] GDP대비 프로그램 지출 비중



자료: Budget 2009(2009.01.27)

□ 노후혜택에 대한 지출 증가 전망

- 2009~10년 노후혜택은 전년대비 5.4% 증가하여 352억 캐나다달러이고, 점차 증가하여 2013~14년에는 426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노령인구 증가와 소비자가격 변동 때문에 지출 증가가 예상됨

□ 고용보험 지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2009~10년 고용보험 지출은 전년대비 21.4%로 크게 증가하여 189억 캐나다달러일 전망
  - 이러한 고용보험 지출 증가는 평균 산업임금의 성장으로 최대 보장소득이 증가하였으며 경제 침체로 인하여 실업자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임
- 향후 경제회복과 더불어 실업자 감소를 반영하여 2011~12년부터 감소하여 2013~14년 169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아동보조금 소폭 상승 전망

- 2009~10년 아동보조금은 123억 캐나다달러이고 향후 계속 상승하여 2013~14년 13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아동보조금은 캐나다자녀양육보조금(CCTB: Canada Child Tax Benefit)과 종합육아혜택(UCCB,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으로 구성됨
  - 이러한 증가는 소비자가격 변동과 혜택을 받을수 있는 아동 수의 증가 때문임

<표 II-8> 지출전망

	Actual	Projection					
	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millions of dollars)							
Major transfers to persons							
Elderly benefits	31,955	33,350	35,160	36,595	38,420	40,525	42,630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sup>1</sup>	14,298	15,585	18,920	18,960	16,740	16,785	16,945
Children's benefits <sup>2</sup>	11,894	11,935	12,270	12,520	12,800	12,960	12,990
<b>Total</b>	<b>58,147</b>	<b>60,870</b>	<b>66,350</b>	<b>68,075</b>	<b>67,960</b>	<b>70,270</b>	<b>72,565</b>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Federal transfers in support of health and other social programs	31,346	33,325	35,100	36,855	38,715	40,680	42,750
Fiscal arrangements <sup>3</sup>	14,603	15,110	16,045	16,455	16,955	17,875	18,895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sup>4</sup>	-2,720	-3,155	-3,080	-3,200	-3,425	-3,680	-3,940
Canada's cities and communities	778	1,000	2,000	2,000	2,000	2,000	2,000
Other	2,145						
<b>Total</b>	<b>46,152</b>	<b>46,280</b>	<b>50,065</b>	<b>52,110</b>	<b>54,245</b>	<b>56,875</b>	<b>59,705</b>
Direct program expenses	95,199	99,610	112,670	116,305	112,920	117,365	121,790
<b>Total program expenses</b>	<b>199,498</b>	<b>206,760</b>	<b>229,085</b>	<b>236,490</b>	<b>235,125</b>	<b>244,510</b>	<b>254,060</b>
Per cent of GDP							
Major transfers to persons	3.8	3.8	4.3	4.2	3.9	3.8	3.7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0	2.9	3.2	3.2	3.1	3.1	3.1
Direct program expenses	6.2	6.2	7.2	7.2	6.5	6.4	6.3
<b>Total program expenses</b>	<b>13.0</b>	<b>12.9</b>	<b>14.7</b>	<b>14.5</b>	<b>13.6</b>	<b>13.3</b>	<b>13.1</b>

자료: Budget 2009(2009.01.27)

#### 4. 경제위기 대응정책

□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큰 폭 인하(2007.12~2009.01)

- 기준금리는 '07년 12월 4.25%에서 3.25%p 인하되어 '09년 1월 1.00%로 이는 '58년 이후 최저 수준임

<표 II-9>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시행일	기준금리(%)	인하폭(%p)
2007.12.04	4.25	0.25 인하
2008.01.22	4.00	0.25 인하
2008.03.04	3.50	0.50 인하
2008.04.23	3.00	0.50 인하
2008.06.10	3.00	동결
2008.07.15	3.00	동결
2008.09.03	3.00	동결
2008.10.08	2.50	0.50 인하
2008.10.21	2.25	0.25 인하
2008.12.09	1.50	0.75 인하
2009.01.20	1.00	0.50 인하

□ 캐나다 중앙은행 유동성자금 긴급 투입(2008.09)

-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국구제금융법안 부결로 인해 위기에 처한 캐나다 금융시장을 위해 단기채권을 발행해, 유동성 자금 40억 캐나다달러를 긴급 투입하였음 (08.09.30)
- 캐나다 정부의 40억 캐나다달러 유동성 자금 투입은 '08년 9월 리만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과 메릴린치 매각으로 불거진 금융시장 신용경색에 대응하는 최대 액수의 공적자금임

<표 II-10> 단기채권 발행

단기채권 만기일	금액	발행일
2008년 10월 16일	16억 캐나다달러	2008년 10월 2일
2008년 10월 30일	19억 캐나다달러	2008년 10월 2일
2008년 12월 11일	5억 캐나다달러	2008년 10월 2일

자료: 캐나다 중앙은행

□ 캐나다 연방정부의 수출지원(2008.10 & 2008.11)

- 연방정부는 수출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캐나다수출보험공사(EDC)에 20억 캐나다달러를 승인하여 캐나다 기업의 수출을 지원(2008.10)
- 캐나다 산업부는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BDC)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2008.11.12)
  - BDC의 중소기업 대출지원 기금을 97억 캐나다달러에서 115억 캐나다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시중은행을 대신해 캐나다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

□ 캐나다 연방정부의 자동차 산업 구제책 추진(2008.12)

- '08년 12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40억 캐나다달러의 공동 지원금을 발표하였음
  - 캐나다 정부는 '08년 12월 29일 첫 지원금을 시작으로 '09년 3월까지 GM과 크라이슬러사에 각각 30억, 10억 캐나다달러를 지원
- '08년 예산안에서 Automotive Innovation Fund(AIF)를 통해 향후 5년간 2억 5천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캐나다의 고연비엔진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

□ Budget 2009 경기부양정책(2009.01.27)<sup>1)</sup>

- 캐나다 연방정부는 400억 캐나다달러(GDP대비 2.5%)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2년간 총 516억 캐나다달러(GDP대비 3.2%) 규모의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캐나다인들에게 혜택 및 지출 부양정책 128억 캐나다달러 지원
  - 주택시장 활성화 78억 캐나다달러 투자 → 기대효과 약 15억 캐나다달러
  - 기반시설 구축 118억 캐나다달러 투자 → 기대효과 약 89억 캐나다달러
  - 기업 및 커뮤니티 75 억캐나다달러 지원 → 기대효과 13억 캐나다달러
- 경기부양정책을 위해 2013년 회계연도까지 모두 850억 캐나다달러 적자재정 운영

<표 II-11> 경기부양정책 효과

	2009	2010	Total
	(millions of dollars—cash basis)		
<b>Action to Help Canadians and Stimulate Spending</b>	5,880	6,945	12,825
<b>Action to Stimulate Housing Construction</b>	5,365	2,395	7,760
Housing leverage	725	750	1,475
<b>Immediate Action to Build Infrastructure</b>	6,224	5,605	11,829
Infrastructure leverage	4,532	4,365	8,897
<b>Action to Support Businesses and Communities</b>	5,272	2,255	7,527
Sectoral leverage	1,300		1,300
<b>Total federal stimulus</b>	22,742	17,200	39,942
<b>Total stimulus (with leverage)</b>	29,298	22,316	51,613
As a share of GDP (%)			
Total federal stimulus	1.5	1.1	2.5
Total stimulus (with leverage)	1.9	1.4	3.2

자료: Budget 2009(2009.01.27)

1)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2. The Budget 기조 및 내용' 참조